



### 3 EU 집행위원회, 단일 시장을 위한 EU 법인(EU Inc.) 체제 제안

⇒ 유럽연합집행위원회(EC)는 27개 회원국의 파편화된 회사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EU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법인('EU Inc.') 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\*(26.3)

\* Commission presents proposal for EU Inc. - unlocking the full potential of the Single Market for Europe's entrepreneurs

- (배경) EU는 단일 시장을 표방하지만, 27개 회원국마다 회사법을 보유하고 있고, EU 전체 회사 설립 유형이 60가지가 넘는 등 회사법 규제는 파편화 - 복잡한 규제 체제 속에서 EU 기업들은 회사 설립 절차 지연, 성장 둔화, 비용 증가, 국외로의 사업 확장 장벽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

- '24년 드라기 보고서\*는 EU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 기업들이 유럽에서 손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

\* 전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이자 경제학자인 마리오 드라기(Mario Draghi)가 작성한 보고서 (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, '24.9.9. 발표)

-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(Ursula Gertrud von der Leyen) EU 집행위원장은 '24~'29년 EC 정책 지침\*과 25년 9월 연례 정책 연설에서 'EU Inc.' 구상을 발표

\* EUROPE'S CHOICE-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 - 2029('24.7.18.)

- (개요) EU 공통의 회사법('EU Inc. 규정')을 도입해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파편화된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

- 기존 회사법을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, EU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 유형('EU Inc.')을 새로 추가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

- 설립자가 EU의 어느 지역에서, 어떤 유형의 기업을 설립할지 선택할 수 있는 '자율성'과, 기업 설립·운영 절차의 '디지털화'를 중시

※ 설립자는 자국 회사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지, 또는 독일 시장을 겨냥해 독일에서 기업 (GmbH)을 세울지, 아니면, EU 공통 법인(EU Inc.)을 세울지 선택 가능

- EC는 이러한 구상을 통해 단일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, EU 기업의 창업·운영·성장을 촉진하며, 유럽으로의 기업·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U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또한 EU의 28차 체제\*의 초석이자 출발점이 될 전망으로,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'28년까지 '하나의 유럽, 하나의 시장' 실현을 강조

\* 28th regime: EU 전역에 공통 적용되는 기업 설립·운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구상

- **(특징)** 기업 설립·운영 절차 간소화, 기업 프로세스 전면 디지털화, 투자·인재 유치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
  - 특히 기업 등록 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없애 진입 장벽을 철폐
  - 또한 기업 설립·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48시간 이내 설립 허가, 공증 절차 생략, 100% 온라인 법인 설립 프로세스 구축 등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
  - EU 회원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인정되는 표준 정관도 도입
  - 이에 더해 국가별로 제각각인 스톡옵션 세제와 권리 체계를 표준화하고, 유럽 전역의 인재를 하나의 계약서로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

〈 ‘EU Inc.’ 주요 특징 〉

구분	주요 내용
신속한 설립(등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유로 미만의 비용으로 48시간 이내 설립 완료</li> <li>•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</li> </ul>
절차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EU Inc.’를 위한 범 EU 차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업 정보 등록 일원화(자료 제출은 1회만 요구)</li> <li>• 중앙형 EU 등록 시스템(EU register) 구축 추진</li> </ul>
완전한 디지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업 프로세스 전면 디지털화</li> </ul>
재창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간소화된 디지털 청산·파산 절차 지원</li> </ul>
투자 유치 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화된 절차 제공</li> <li>• 주식 양도 절차 간소화 및</li> <li>• 주식 양도·청산 절차에서 중개자 개입 의무 제거</li> <li>• 회원국으로 하여금 ‘EUInc.’의 주식 시장 접근 허용 지시</li> </ul>
인재 유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U 전역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주식 매각 시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</li> </ul>
단일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‘EU Inc.’ 설립 시 국가 선택의 자유 보장</li> <li>•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</li> </ul>
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동·사회법은 기존의 국가별 규정을 그대로 적용</li> </ul>
주식 유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양한 의결권·경제권 구조 설계 가능</li> </ul>

- **(향후 일정)** ‘EU Inc.’ 구상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
  - EC는 ’26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, EU 정책입안자들이 신속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출처 : EU 집행위원회 (2026.3.18.)

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\\_26\\_614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6_614)